

대학도서관에 있어서 사서중심의 장서개발은 가능한가?"

- 부산대학교 도서관을 중심으로 -

김 정 근*

< 목 차 >

1. 무엇이 문제인가
2. 설명의 방법과 자료가 있는가?
3. 사서중심의 장서개발 프로그램은 어떻게 개척될 수 있는가?
4.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은 무엇인가?

1. 무엇이 문제인가?

- 서론에 대신하여

대학도서관에 있어서 장서개발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료구성과 관련되는 아주 광범위한 일련의 도서관적 기능을 생각하게 된다. 그것

* 부산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1) 나는 여러 해 동안 우리 학문의 유용성과 실천성 문제에 대하여 고심하여 왔다. 이와 관련하여 한때 나의 화두는 '도서관학 연구에 있어서 고장과 때의 문제'로 나타나기도 하였으며, 최근 몇년 동안은 그것이 좀더 솔직하게 '우리식 문헌정보학 어떻게 할 것인가'로 다가와 있다. 나는 이 화두 굴리기를 나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공동작업실의 멤버들과 더불어 하고 있다. 공동작업실의 그동안의 성과에 대하여는 이 작업실이 펴내는 학기는고집, 제 1집(1991), 제 2집(1992), 제 3집(1993)을 참조하면 좋을 것이다. 공동작업실의 멤버들이 최근에 생산한 석사학위논문들 중, 예를 들면 김영기의 도서관현상을 통해 본 공공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인식의 문제(1993), 윤현옥의 대학도서관의 연속간행물 업무조직에 대한 연구-부산형과 통합형을 중심으로(1993) 역시 같은 화두 밑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도서관학논집 이번 호(제 20집)에 실린 이수상의 "한국문헌정보학의 지식체계에 관한 연구-문헌정보학관련 학회논문집 게재논문들 중심으로" 또한 같은 지향으로 쓰여진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나의 이번의 논문 역시 같은 흐름 속에서 같은 화두굴리의 과정 속에서 생산되는 것임을 밝혀둔다.

은 구입자료뿐 아니라 기증자료나 교환자료와도 관련이 되며 인쇄매체로 된 단행본자료, 연속간행물자료뿐 아니라 각종의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각종 CD-ROM과 같은 오프라인 데이터베이스 자료, DIALOG나 KINITY-IR과 같은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자료까지를 포함하는 전 매체 영역과도 관련이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료의 수집에서부터 보존, 폐기와 제적에 이르는 전 과정을 포함하여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이 모든 자료와 매체, 그것을 둘러싼 전체과정을 다 언급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나의 포커스가 흐려질 염려가 있다고 본다. 나는 여기서 나의 논제를 전술적으로 드라마타이즈시키기 위하여 언급의 범위를 한정하려 한다. 대학도서관 장서개발 문제의 요충지대라고 할 수 있는 서양서 단행본 자료와 서양서 저널자료에 한하여 그것의 선정과 구입과정을 중심으로 논제를 풀어가 보려고 한다. 현단계 대학도서관의 장서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풀어나가는 것이 올바른 수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자. 왜 사람들은 전산‘만’ 가지고 야단일까? 왜 이 나라 문헌정보학과와 도서관계의 너노라 내노라 하는 사람들은 발언만 했다 하면 전산일까? 과연 우리 학문의 과제가 그것 ‘뿐’이어서일까? 과연 우리 현장의 과제 또한 그것 ‘뿐’이어서일까? 전산은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패너지(panacea)인가? 여의주인가? 과연 전산만이 중요한가? 전산이면 다인가?

사람들의 논조를 보면 바로 그런 것 같기도 하다. 전산이면 바로 다인 것 같다. 마치 전산화만 되면 이제 더이상 개채 도서관이 책을 사들이고 저널 종수를 늘이는 것이 무의미하게 된다는 뜻인 듯도 하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열일 다 제치고 전산화‘만’ 되면 만사형통인가? 정말이지 나는 강한 ‘유보’(reservation)를 말하며 ‘의심’(suspicion)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미심

스러우며 수상쩍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우리 현장에 대한 사람들의 일그러진 관찰과 통찰력없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이것은 동시에 나라 바깥의 사정에 대한 전문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에게는 많은 경우 미국이 중요 레퍼런스(reference)로 되어 있다. 사람들은 미국이라면 대개 사족을 못쓴다. 그래 좋다. 그러면 미국을 예로 들기로 하자. 왜 예이 아르 엘(ARL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의 모든 회원도서관이 전산화가 이미 '완료'되었는데도 저마다 거대한 규모의 책과 저널 중심의 장서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술 더 떠서 다투어 많은 경우 중복의 '위험'과 '어리석음'을 무릅쓰고 결신이라도 들린 것처럼 의욕적으로 새 책과 새 저널을 사들이고 있는 것일까?

미국의 사정이 이러할 때, 왜 이나라의 내노라 너노라 하는 사람들은 개체 도서관의 책·저널 장서 말은 한마디도 없고, 기껏해야 '뉴미디어' 소리나 양념으로 치면서, 꼭 전산소리만 하는 것일까?

나는 아니할 말로 별의별 의심을 다 해본다. 그들은 무엇을 잘못먹고 착각에 걸린 사람들인가? 제국주의 학문에 매몰되어 미국소리를 제 소리인줄 알고 내는 것인가? 그들은 '첨단'에 편승하는 기회주의자들인가? 빛이 안나는 소리는 내기 싫어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들은 행세하기를 좋아할 뿐 일을 향한 진지성이 없는 사람들인가? 그들은 단순히 머리가 나쁜 사람들인가? 본인들에게는 정말 미안한 일이지만 나로서는 그들의 정체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솔직하게 말하자. 과연 전산이면 다인가? 과연 전산이 개체 도서관의 책·저널 장서문제에 대한 답이 되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미국사람들이 장서문제와 관련하여 전산 이야기를 하는 데는, 그것도 전산을 부분적인 해답으로 제시하는 데는 사실 아무런 거부감도 없다. 그들이야 전산이 급선무라고 해도 좋고, 제일 중요하다고 해도 좋다. 나는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데는 아무런 유감도 마음걸림도 없다. 오히려 당연하

다고 생각한다. 다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미국 사람들이 그들의 발전 단계에서 전산을 강조하는 것은 정말 '계기'를 잡는 것이며 그들의 현실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왜일까? 대답은 간단하다. 그들에게는 전산화와 그것을 통한 공유와 상호이용(ILL -Interlibrary Loan)을 통하여 개체 도서관 장서의 불완전성을 보충해 갈 수 있는 전제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 전제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아닌 개체 도서관의 '장서'라는 것이다. 개체 도서관이 의도적으로 체계에 따라 50년, 100년 걸쳐 구축하여 온 장서, 즉 개체 도서관의 '기본장서' 플러스 '특색있는 장서구성', 이것이 바로 전산화를 통한 공유와 상호이용 제도를 의미있게 하는 전제조건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와 같은 전제가 충족되어 있는가? 한국사람들이 미국과는 확연히 다른 이땅의 후미진 장서현실을 엄연히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 전산부터 이야기하는 데는, 전산을 그 해답으로 제시하는 데는, 마치 전산만이 중요하며, 제일 급하며, 이것 다음에는 모든 장서문제가 다 풀릴 것이라고, 저절로 쉽게 해결되리라고 말하는 데는 무엇인가가 마음에 파악 걸려 얼른 동의하고 나서기가 어려워진다. 왜 그럴까? 왜 나는 사람들과 사이 좋게 맞장구 치고 나가지 못하는 것일까? 여기서도 나는 이유는 간단하다고 대답한다. 그것은 저들 미국사람들과는 달리 우리에게 아직 '전제'가 마련되어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다. 전단계가 없는 다음 단계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가짜요, 사기이며, 기만이라는 것이다. 나는 묻는다. 우리가 언제 장서를 개발한 적이 있는가? 그저 굵어 모았지, 언제 '의도성'있게 개발한 적이 있는가? 우리의 개체 도서관에 '기본장서'와 '특성화'가 완성되어 있는가? 서로 빌려주고 빌려받을 것이 있는가? 가령 부산의 동아대학교 도서관과 부산대학교 도서관이 서로 전산으로 연결되었을 때, 그리고 부산대학교 도서관과 경북대학교 도서관이 연결되었을 때 과연 인터 라이브러리로의 개념과 제도가 의미있어질까? 그들은 무엇을 교환의 대상으로 삼을

대학도서관에 있어서 사서중심의 장서개발은 가능한가? / 5

수 있을까? 김동길의 수필집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신달자를 빌려주고 허영자를 빌려받을까? 이문열의 「영웅시대」를 교환품목으로 내세울 수 있을까? 까놓고 이야기하자. 서로 비슷한 폐품더미, 교양도서, 교재도서관 잔뜩 안고 있는 도서관끼리 무엇을 빌려주며 무엇을 빌려받는다든 것인가? 더구나 자체고객의 기본적인 욕구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도서관이 남의 고객 시중들 여유라도 있는 것일까?

나는 비유적으로 이렇게도 생각해 본다. 밥, 된장, 고추장, 김치가 이웃사에 교환품목이 될 수 있는가? 서로 담을 너머 교환의 의미를 떠려면 '기본'은 각자가 해결한다는 전제 밑에 반찬이 서로 '특성'을 띠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허구헌날 밥을 어떻게 빌어 먹을 것인가? 된장, 고추장, 김치 빌려 이웃에 손 벌릴 것인가? '특성있는' 반찬이 한번 담을 넘어가고 또 '특성있는' 다른 반찬이 그 다음에 한번 넘어오는 것이 '의미'(significance)있지 않을까?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매듭을 짓고자 한다. 전산화도 좋고 무엇도 좋다고 좋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적어도 그것과 병행하여 개체 대학도서관은 자체의 단위와 레벨에서 책과 저널을 중심으로 한 '기본장서' 플러스 '특성화'를 완성시키고 보아야 한다. 우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다른 좋은 이야기도 하자든 것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문제가 다 풀리는 것은 아니다. 개체 도서관의 장서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였을 때 학계와 관계에 팽배해 있는 혼란과 패배주의가 다소 가실 수 있는 실마리가 잡힌다는 것 뿐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음의 질문 앞에 서게 된다. 개체 대학도서관은 지금부터라도 자체의 튼실한 책·저널 장서를 갖추어 가야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어떻게 계기를 잡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다. 사람들은 의아해 할지 모른다. 그게 무엇이 그리 어려운 일이겠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아니다. 알고보면 지금부터가 정말 어렵다는 것이다.

나는 앞서 부산대학교 도서관을 중심으로 하여 '장서문제'를 제기한 논문²⁾에서 다음과 같이 물은 적이 있다.

부산대학교 도서관은 1989년 말 현재 장서 52만권을 '확보'한 것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이 장서 52만권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있는가? 그 의미를 똑똑히 댈 사람이 누구인가? 한마디로 이런 식의 장서라면 52만권이면 무엇하며 또 152만권이면 무엇하겠는가?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이것이 과연 대학도서관의 서가인가? 이곳은 폐품수집장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 어떤 이유로 이곳에는 무명의 저자, 편자, 역자, 무명의 작가, 시인, 수필가가 이처럼 판을 치고 있는가? 어떤 이유로 그들은 많은 경우 다섯권, 열권 또는 수십권씩의 복본의 형태로 서가를 점유하고 있는가? 왜 연속간행물 수집은 또한 이러한가? 왜 이처럼 결호가 투성으로 나있는가? ...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는 이 장서 속에서 사람의 의도성(intention), 직업적 관심(professional concerns) 같은 것을 발견할 수 있는가? 이 장서에 전문가의 손에 의한 어떤 체계적이며(systematic), 지속적인(continuous) 노력의 흔적이 있는가?

나는 같은 논문의 다른 곳에서 다음과 같이 물기도 하였다.

부산대학교 도서관 장서는 이를테면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같은 나의 관찰은 뒤에서 소개될 이용자그룹의 불만과 항의 속에서도 유보없이 지지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이제 부산대학교 도서관 장서에 대한 나의 전면적 부정이 솔직하게 인정된다는 전제 밑에

2) 김정근, "대학도서관의 장서개발 문제 -80년대 부산대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圖書館文化 34권 6호(1993. 11·12)를 참조하라.

대학도서관에 있어서 사서중심의 장서개발은 가능한가? / 7

질문을 좀더 구체화시켜보자. 부산대학교 도서관 장서문제의 핵심은 무엇인가? 문제의 해답은 어디서 찾아질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장서문제는 부산대학교 도서관에 국한되는 문제일까?

그때 나는 위와 같은 질문들을 통하여 ‘장서문제’를 푸는 어떤 실천적 메커니즘을 구하고자 했던 것이다. 황폐한 대학도서관 서가의 과거 배경을 설명해 줄 수 있으며 동시에 그것을 개선해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어떤 통합된 장치를 찾아보고자 했던 것이다. 그 때 내가 마지막으로 구해 올린 대답은 ‘장서는 수집되는 것이 아니라 개발되는 것’이라는 매우 평범한 행동 전략 하나였다. 나는 그 논문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지었다.

이제까지의 긴 논의에 근거한 나의 결론은 무엇인가? 학생들의 표현대로 ‘만신창이’, ‘엉망진창’의 부산대 도서관 장서에 대한 치유책은 무엇인가? 나의 문제제기, 나의 관찰, 이용자의 인식에 기초하였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결론에 이르는가? 나는 이렇게 본다. 그들은 코리스를 이루어 하나의 길을 제시한다고 본다. 그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의 평범한 진실을 새롭게 실천적으로 끌어안도록 유도한다고 본다. 그것은 장서는 사서진의 적극적인 개입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체제에 따라 개발(develop)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 장서는 그냥 수집되어서는 안된다. 장서는 개발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나의 질문은 이와 같이 모양새를 갖춘다. ‘대학도서관에 있어서 사서중심의 장서개발은 가능한가?’

2. 설명의 방법과 자료가 있는가?

그럼 나에게서는 위의 논제를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방법과 자료가 있는가? 우선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를 한번 더 정리하고 넘어가기로 하자. 나는 여기에서 한국의 개체 대학도서관이 전산화의 전제조건으로서, 적어도 그 병행조치로서, 자체 보유의 책·저널 중심의 장서를 의도적으로

구성해 가야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실제로 어떻게 추진하여 갈 수 있는가의 문제와 관련되는 역동적 구조를 규명해 보려고 한다. 나의 의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몇가지 질문을 던져 본다. 한국의 개체 대학도서관은 어떻게 장서발전의 계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가? 열악한 조건과 환경 속에 놓여 있는 개체 대학도서관은 어떻게 이전 시기에 비하여 차별성을 나타내면서 장서개발을 해 나갈 수 있는가? 우리의 현실이 바로 그러하듯이 개체 대학도서관이 매우 소극적인 법적 제도적 지원, 행정적 지원 밑에서 낮은 수준의 인적 물적 자원을 허용받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전 시기에 비하여 장서개발의 면에서 차이를 낼 수 있는가? 이 때 사서진의 '전술'과 '기술'의 의미란 무엇인가? 이제 나는 어떻게 위의 질문들에 대답하려고 하는가?

무엇보다도 먼저 나는 지난 시기 우리가 아는 사이 또는 모르는 사이 이 땅에 고착되어 온 학문방법론적인 맹점을 의식하면서 여기서는 우선 어떤 방법으로는 대답을 시도하지 않겠다는 말부터 해야겠다는 생각이다. 그것은 나는 위의 질문들에 대답하기 위하여 서양 사람들이 쓴 책이나 논문을 읽고 거기서 구한 장서개발의 방안을 이것이다라고 내놓고 그것을 우리의 현장에 대입시키려는 따위로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책임하게 돈이나 퍼부으라는 식으로는 답을 제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어디 돈이 그리 쉬운가? 우리는 지난 시기 그런 식으로 너무나 많이 해왔지만 현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가? 현장이 변하지 않고 있지 않은가? 이제 우리는 서양 사람들이 쓴 책과 논문은 불가근 불가원 적절한 거리에 두고 참고로 삼을 수 있을 뿐 우리 현실에 직접 대입은 곤란하다는 것쯤은 알아차릴 만큼 철날 때도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저 사람들이 자기들의 현장을 전제로 하여 경험적으로 귀납적으로 구해 올린 해답을 역

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아주 다른 환경과 단계에 놓여 있는 우리의 도서관 현장에 그대로 대입하려는 것은 우선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그런 식의 비주체적 학문방법은 현실적합성의 측면에서 우리의 경험 속에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기에 오늘날 우리의 현장에 의하여 강력하게 부정되고 있다는 것이다.³⁾

사실 우리의 문제를 서양식으로 풀려고 한다거나 돈으로 해결하려는 발상은 둘다 너무 안이한 접근들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럼 나는 여기서 어떤 다른 방법으로 위의 질문들에 대답하려고 하는가? 그동안 우리에게 매우 익숙해져 있는 외국문헌에의 의존을 가능한한 절제한다고 했을 때, 나에게 허용되는 방법이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이에 나는 이번 사용방법으로서 구체적 현장(case)의 경험(history) 속에서 가능성을 찾아 제시하는 길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례와 역사는 하나의 증거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나에게 케이스 히스토리를 제시할 수 있는 관찰과 자료가 있는가?⁴⁾

3) 나는 솔직하게 말하여 학문생활의 대부분을 서양문헌을 뜯어읽고 소화하려고 애쓰는 것을 일로 삼으며 보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제국주의의 시대'를 살아오는 문헌정보학계와 도서관계의 나의 동시대인들의 경우가 다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나 자신은 유학생 출신이 아닌가? 1971년 여름부터 1984년 봄까지 12년 만에 걸친 북미체류의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가? 그래서 나와 서양문헌은 뭘래야 뭘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내가 80년대 전반이래 부산대학교에 위치하면서 우리의 도서관 현장 문제에 직접적이며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나는 서양문헌을 뜯어읽고 소화하기에 있어서 그 이전과는 입장을 달리하게 되었다. 나는 본문에서 '불가근 불가원'이라고 표현하였지만, 사실 우리 학문에 있어서 서양문헌의 유용성문제는 그 자체가 따로 매우 중요한 논구의 여지를 제공한다. 여기서는 다만 나의 경우 현장문제됨 남의 문제가 아닌 나 자신의 문제이며 나의 학문은 그것에 복무하는 것일 때 의미를 뱉 수 있다고 단정적으로 규정 이후 서양문헌을 맹목적으로 추수하던 종래의 입장을 1980년대의 어느 길목 어느 모퉁이에서 청산하게 되었다는 점만을 말하고 넘어가려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한 나의 지금까지의 생각을 이해하려면 다음을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김정근, "대학도서관운동에 있어서 주체의 문제 - 부산대학교 도서관을 중심으로" 문헌정보학보(전남대학교) 제 4집(1990), pp. 1-30 of the 주20(pp. 29-30); 김정근, "나는 어떻게 제 3세계 도서관방법론"을 말하게 되었는가?" 圖書館文化 34권 4호(1993. 7·8), pp.2-4.

4) 나는 여기서 '외국문헌에의 의존을 가능한 한 절제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말은 내가 전혀 외국문헌을 더이상 읽지도 않고 참고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지만 이 문제는 매우 복잡한 학문방법론적인 문제이며, 따라서 별도의 논구를 요하는 문제이다. 나는 이 문제에 관하여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말하고 넘어가려고 한다. 나는 물론 외국문헌을 읽고 참고한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직접적인

나는 워낙 도서관 구경하기를 좋아하여 지난 몇십년 동안 참 무던히도 많은 국내외의 도서관을 보아 왔다. 최근 10년 동안 국내의 도서관들에 집중된 나의 도서관 보기는 직업과의 밀접한 연관 속에서 진행되었기에 '구경'의 정도를 넘어서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여러가지 인연과 관련 속에서 한 도서관을 특별히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게 되었는데 그것은 내가 매일 출근하는 캠퍼스 부산대학교 도서관이었다. 이 도서관은 나의 연구실로부터 30m 거리에 있었다.

나는 부산대학교 도서관을 여러가지 입장과 커패시티에서 보아 왔다. 84년 3월에 이 대학에 첫발을 들여 놓은 이래 줄곧 책을 빌리고 잡지를 읽기 위하여 이 도서관에 가는 것은 이 대학의 다른 구성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기본이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입장이 있었다. 나는 '대학도서관 경영' '장서개발' 따위의 교과목의 담당자로서 이 도서관을 보게 되었으며, 87년 내가 가르친 학생들에 의한 '도서관개혁운동'이 일어났을 때는 당시의 학과장으로서 대학사회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가며 기대와 우려 속에서 이 도서관을 보기도 하였다. 데모의 와중에서 학생들이 총장, 교무처장, 학생처장을 상대로 '협상'을 벌일 때는 '배석'하는 입장에서 이 도서관을 바

용이나 대입은 없다. 독자는 그렇다면 왜 읽는가라고 의아해 할 지 모른다. 이에 대한 나의 대답은 서양문헌 읽기는 나에게 '안목'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내가 나의 '안목'을 위하여 연구실에 갖추어 두고 대학도서관의 장서문제를 생각할 때 수시로 읽고 참고하는 외국문헌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G.E. Gorman and B.R. Howes, Collection Development for Libraries(London: Bowker-Saur, 1989) ; G. Edward Evans, Developing Library and Information center Collections, 2nd ed.(Littleton: Library Unlimited, 1987) ; Clare Jenkins and Mary Morley ed., Collection Management in Academic Libraries(Brookfield: Gower, 1991) ; Donald Davinson, The Periodical Collection(London: Andre Deutsch, 1978) ; Elizabeth Futas ed., Library Acquisition Policies and Procedures(Phoenix: Oryx Press, 1984) ; Rose Mary Magrill and Dorilyn J. Hickey, Acquisitions Management and Collection Development in Libraries (Chicago : ALA, 1984) ; Richard K. Gardner, Library Collections: Their Origin, Selection, and Development(New York: McGraw -Hill, 1981) ; Wallace John Bork and Rose Mary Magrill, Building Library Collections, 5th ed.(Metuchen: Scarecrow, 1979) ; William A. Katz, Collection Development: The Selection of Materials for Libraries(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80) ; S.R. Ranganathan, Library Book Selection(Bangalore: Sarada Ranganathan Endowment for Library Science, 1940)

라다 보기도 하였다. 나는 몇번에 걸쳐 이 도서관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계획에도 참여한 바 있다. '부산대학교 도서관신축을 위한 기본계획연구'(1988), '부산대학교 자체평가연구'(1989), '부산대학교 도서관 발전계획, 1992-2001'(1991), '부산대학교 대학원중심대학 기획연구'(1993) 등에 나혼자 또는 박인용, 최정태 교수와 함께 대학도서관 부분을 배정받아 참여하였다.

그러나 내가 이 도서관을 바깥에 선 입장이 아니라 안에 선 입장에서 구석구석 속속들이 들여다봄으로써 이제까지 관찰의 피상성, 불완전성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도서관의 매일매일의 전체과정에 부관장(1988-89), 관장(1992-93)의 자격으로 각각 2년간씩 참여하는 기회를 통해서였다. 그때 나는 그야말로 많이 보고 많이 배웠다. 모든 의심과 의구가 다 풀려나가는 경험을 하였다. 나는 이렇게 외쳤다. '아, 한국의 대학도서관 조직이란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대학도서관 조직의 생리와 병리가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나는 느낌으로만 알았던 것을 사실로서 확인할 수도 있었다. 나는 편의에 따라 이전 시기를 외부적 관찰기간이라고 하며 이 시기를 내부적 관찰기간이라고 불러본다.⁵⁾

부관장으로 있었을 때는 음지에서 관장을 돕는 입장이었던 만큼 큰 일을 벌일 수는 없었다. 그러나 이전에 비하여 관찰의 범위는 훨씬 넓어져 있었고 깊이 파고 들 수도 있었다. 이것은 당시 관장직에 있었던 두분의 인품과 경향에 크게 힘을 입었던 부분이기도 하다. 나는 부관장직에 2년간 머무는

5) 나는 한국의 대학도서관사상 국내에서 정사서 자격증을 받은 후 미국의 ALA Accredited Schoo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를 정식으로 졸업한 사람으로서 는 최초로 국립대학 도서관의 부관장과 관장으로 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나는 나의 이 경험이 나 개인의 일회성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국립대학들에도 영향을 미쳐 앞으로 많은 전문직 관장이 태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의 도서관 선진국의 경우처럼 교수의 겸보직관장 시대를 청산하고 전문직 불박이 관장 시대를 빨리 불러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동안 첫 1년 동안은 부산대학교가 전국 무대에 내놓는 제 1급 학자 1990년 대한민국 학술원상 본상에 빛나는 '조선농업사연구'의 저자 민성기 교수를 도왔으며, 다음 1년 동안은 부산대학교가 전국 무대에 내놓는 또다른 제 1급 학자 도남학술상 수상자이며 '한국문헌학연구'('출판저널', 1989년 10월 5일자 표지소개)의 저자인 류탁일 교수를 돕는 입장에 있었다. 이 두분은 인문학자들로서 도서관자료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부관장의 '전문적' 기여에 대하여는 매우 허용적이었다.

부관장으로 있으면서 도서관 안의 의식있는 사서진과 더불어 추진해 본 일로서 그 뒤 장서업무를 포함하여 도서관의 제반 업무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를 하게된 부분은 부산대도서관을 구성하는 10개 실(예:수서실, 정기간행물실, 서지조사실)의 당면과제를 확인하여 이를 문서화하는 작업이었다. 이 작업은 88년 전·후반기와 89년 전·후반기에 걸쳐 추진된 것으로서 이 때 확인된 당면과제는 모두 33개 영역에 걸쳐 있었다. 이 33개 영역의 과제의 확인작업은 내가 부관장으로 있는 동안, 그리고 나중 관장으로 다시 일하게 되었을 때 사서진의 '전술개발'과 '기술개발'을 통하여 나의 문자로 부산대도서관이 '힘써름을 극복하고 기술써름'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기초가 되었다. 참고로 그 33개 영역의 당면과제를 당시의 문서들에서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⁶⁾

인사구조

예산구조

6) "88년도부터 추진 또는 계획중인 특별사업, 1988. 12. 1"(부산대학교도서관) 이 문서의 표지에는 "아래의 내용은 본 도서관이 88년도 3월 이래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로서 도서위원회(88. 11. 15)와 도서관확대간부회의(88. 11. 29)에 소개된 바 있다"라고 설명이 붙어 있다. "도서관소식 발간을 위한 실별 업무분담, 1989. 3"(부산대학교도서관) 이 문서는 사서들로 하여금 실별 당면과제를 확인시키고, 과제마다 개념을 세우고 실천정도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밝힐 것을 안내하고 있다.

도서관 신축문제

주제담당사서제 도입과 수집업무의 효율화

선정도구자료 개발업무의 활성화

서지도구자료 개발업무의 활성화

기본장서 개발을 위한 연구

교양자료, 학생추천자료 선정기준 개발

마이크로자료 개발

시청각자료 개발

대학 캐털로그자료 개발

정부간행물 수집업무 활성화

공산권과 제3세계관계자료 수집업무 활성화

CD-ROM 개발 연구

구입외국학술잡지 타이틀 타당성 조사

국내학회지 수집업무의 활성화

잡지자료 개발개념의 도입

색인 초록자료코너 설치운영

학술잡지소장 현황 종합점검 및 잡지결호조사

열람용 목록카드의 정비

고서목록 정비

인계방법 개선

조정반 또는 재정리반의 편성

장서점검 준비

자료실 연장개관

동양자료실의 개가운영

서양자료실의 개가준비

대출 반납업무의 전산화 계획

참고조사업무의 개선

논문자료 서비스의 개선

Dialog-Dialcom 설치 운영

과학분관업무의 활성화

의학분관업무의 활성화

나의 부관장 시기를 증언하는 기록은 많다. 각종 계획서, 결과보고서의 형태로 남아 있으며, 그 때 나온 「도서관소식」 창간호(1989.4)와 제2호(1990.3)에 집중적으로 남아 있다.

관장 직책에는 부관장 직책에 없던 추진력이 붙어 있었다. 게다가 부관장직에 있을 때 얻은 경험과 관찰, 그 때 생산해 두었던 문서들이 도움이 되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미 확인되어 사서진 속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33개 영역의 과제가 고스란히 살아남아 나의 협력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의식있는 사서진과 더불어 첫날부터 24개월 후 관장직에서 물러나는 날까지 이 33개의 과제를 중심으로 뛰게 되었다. 활동의 초점은 사서전문직의 '전술'과 '기술'을 통한 차별성내기였다. 대학도서관에 영향을 미치는 법과 제도, 행정적 지원이 달라져 대학도서관의 출력이 바뀌기란 그야말로 백년하청같았다. 유일한 탈출구란 사서진이 주체가 되는 전술의 개발과 기술혁신이었다. 같은 자원 같은 인력 같은 도서관 내외적 환경조건을 가지고서도 전술개발과 기술혁신을 통하여 이전 시기에 비하여 도서관의 출력을 달리 낼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⁷⁾

이 시기 도서관 사서진의 전술개발과 기술혁신을 위한 한 갈래 프로그램은 자체 기술세미나와 그것에 기초한 업무개선 노력이었다. 이것은 초청강사가 있는 일시적 행사형 세미나가 아니었다. 사서 자신이 업무의 수행자이면서 분석자가 되며,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글을 쓰고 발표를 함으로써 담론의 담지자가 되는 식이었다. 세미나의 주제는 '단행본 수집업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연속간행물 수집업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따위였

7) 그당시 나와 의식있는 사서일꾼들이 어떤 결의와 태도를 가지고 당시의 상황으로부터의 탈출방안으로 '사서진이 주체가 되는 전술과 기술의 개발'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이를 이해하려면 도서관소식 발간 때마다 내가 비교적 자세하고 길게 붙여 둔 발간사 부분을 읽으면 도움이 될 것이다. "사서직과 언어" 도서관소식(부산대 도서관), 제 3호(1992. 8), pp. 1-3 ; "사서직과 기술혁신" 도서관소식, 제 4호(1993. 2), pp. 1-3 ; "사서직과 프로세서널 정신" 도서관소식, 제 5호(1993. 6), pp. 1-5 ; "사서직운동-현장사서-자질개발" 도서관소식, 제 6호(1993. 11), pp. 1-4.

다. 우리는 이 자체 기술세미나를 '92년에 12회, '93년에 12회, 모두 24회 개최하였다. 나는 이 때 사서진이 자신의 일에 관한 자신의 언어를 소유하게 됨으로써 아침 저녁 출퇴근하는 무심한 직장인에서 자신과 과업을 동일시하며 일에 흥미를 갖는 의식있는 일꾼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다. 그것은 나의 눈에는 새로운 사서상의 탄생이었다.⁸⁾

사서진의 전술개발과 기술혁신을 위한 다른 한 갈래의 프로그램은 사서 직원들을 해외의 자매대학 도서관에 보내어 연수기회를 가지게 하는 것이었다. '92년에는 간부사서 한 사람과 평사서 한 사람을 캐나다의 브리티쉬 컬럼비아대학 도서관(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Library)에 보내 6주간의 연수를 받게 하였다. '93년에는 평사서 두 사람을 오스트레일리아의 뉴사우스웨일즈대학 도서관(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Library)에 보내 역시 6주간의 연수를 받게 하였다. 어학도 짧은 사서들이 짧은 기간에 무슨 대단한 것을 배울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이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부산대도서관에 끼친 충격과 영향은 대단한 것이었다. 이 지방대학 도서관의 사서직원 가운데 적은 수이지만 누군가가 선진 외국의 도서관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상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큰 의미를 띠었다. 부산대도서관은 이들을 통하여 드디어 '전문'과 '안목'을 가지게 되었다. 연수를 갔다 온 사서들은 각각 긴 연수보고서를 제출하였다.⁹⁾

사서직원의 전술개발과 기술혁신과 관련하여 추진된 또 다른 갈래의 프로그램은 해외의 도서관 전문가를 불러 과제를 미리 부여하여 준비된 세미

8) 부산대 도서관의 자체기술세미나의 세부주제는 도서관소식, 제 4호(1993.2)와 제 5호(1993. 6)에 소개되어 있다.

9) 강태원, 김수선, "우리는 UBC도서관을 이렇게 보았다 -브리티쉬컬럼비아대학(UBC)도서관 연수보고", 도서관소식, 제 4호(1993. 2), pp. 92-112 ; 이수상, 김수진, "우리는 뉴사우스웨일즈대학(University of New South Wales)도서관을 이렇게 보았다 -연수보고", 도서관소식, 제 6호(1993. 11), pp. 67-92

나를 가지는 것이었다. '92년에는 캐나다에서 두 사람의 전문가가 초청되어 2주간 머무는 동안 모두 9회의 세미나를 주관하였다. '93년에는 미국의 전문가가 와서 3주간 머무는 동안 모두 10회의 세미나를 주관하였다. 세미나의 주제는 '장서개발' '도서관전산화의 원리' 따위였다. 통역을 통한 세미나에서 무슨 대단한 기술과 기술이 떨어졌겠는가? 그러나 남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충격'과 '견문'이었다. 그리고 '프리드만 보고서'(Dr. Maurice J. Freedman Report)가 남아 있다.¹⁰⁾

나의 관장 시기의 업무관련 기록들은 비교적 자세하게 남아 있다. 관장이 총장에게 올린 '부산대학교도서관 발전을 위한 정책건의' '주요업무계획' '업무추진보고', 그리고 업무부서에서 관장에게 올린 '업무계획' '결과보고' 따위에 많은 정보가 실려 있다. 나의 관장 시기의 도서관 활동을 가장 집중적으로 담고 있는 자료는 역시 「도서관소식」 제3호(1992.8), 제4호(1993.2), 제5호(1993.6), 제6호(1993.11)이다. 위에서 소개한 자체 기술세미나의 내용 대부분, 사서직원의 해외연수보고서, 외국전문가 초청세미나의 내용들이 두루 실려 남아 있다.¹¹⁾

내가 관장, 부관장의 자격으로 부산대학교 도서관의 과정에 몸으로 참여하며 관찰한 전 시기에 나의 주된 관심은 물론 장서개발 영역에 있었다. 장서의 기초를 놓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된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자료학'을 강의하는 나의 강박관념이었다.

10) "캐나다 UBC 직원 초청 특별세미나 개최", 도서관소식, 제 4호(1993. 2), pp. 113-114 ; "부산대 도서관 외국전문가 초청 기술세미나 3주간 개최", 도서관소식, 제 5호(1993. 6), pp. 152-153 ; "프리드만 보고서(Dr. Maurice J. Freedman Report)" 도서관소식, 제 6호(1993. 11), pp. 9-48

11) 부산대 도서관이 펴내는 도서관소식에 독자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싶다. 이 매체는 현장사서들의 직업적 말하기와 글쓰기의 과정이며 결과로서 생산되는 것이다. 사서직에 있어서 자기존거적 담론의 형성이야말로 이 직업에 종사하는 일꾼들의 자기해방 생존전략으로서 절실히 요구되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이 매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이 따랐으면 하는 생각이다. 도서관소식은 1993년 말 현재 제 6호까지 나와 있다.

위에서 말한 외부적 관찰기간과 내부적 관찰기간을 증언하는 유형 무형의 기록들, 이것들이 나의 정보원이다. 이제 나는 개체 대학도서관에 있어서의 장서개발 환경을 설명하고 사서진이 '전술'과 '기술'을 매개로 하여 현재의 교착상태를 깨고 장서개발 방법의 새로운 모형을 개척하여 갈 수 있는 구조와 역동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위에서 설명한 나 자신의 체험과 관찰, 부산대학교 도서관이 근래 몇년 동안에 이룩한 조직의 체질변화의 과정을 담은 여러가지 공간, 미공간의 자료들을 정보원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들 자료에다 내 나름의 해석과 분석을 가함으로써 나의 논제를 설명해 내려고 시도해 보는 것이다.

3. 사서중심의 장서개발 프로그램은 어떻게 개척될 수 있는가?

대학도서관의 사서진이 '주체'의 자리에 서서 제대로 된 장서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려고 했을 때 그들이 맞게 되는 도서관 내외적 조건은 어떤 것일까? 그들의 생각 한줄기, 말 한마디에 다 돌아가게 되어 있는가? 좋은 아이디어면 순순히 받아들여지는 열리고 자유스러운 환경인가? 허용적인 환경인가? 아니면 오히려 그와는 반대인가? 거기에는 기존의 이해관계가 벽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 나쁜 관행이 고착되어 있지는 않는가? 사서진의 '전문적' 접근은 아예 씨도 먹히지 않는 환경은 아닌가? 현실은 과연 어느 쪽인가?

대학도서관 문제의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로이지만, 현단계 장서문제는 아주 기본에서 부터 풀어가지 않으면 안된다. 가령 이렇다. 이런 것부터 짚어야 한다. 옳은 자료가 들어 오는가? 주문된 자료는 빠짐없이 들어 오는가? 값싸게 들어 오는가? 빨리 들어 오는가? 이용자들이 바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장서개발 프로그램을 고려할 때는 우선 이런 기본적인

질문들부터 제기하고 대답해야 하는 것이다. 동시에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 구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기존의 장서구성의 난맥상에 대한 설명을 얻게 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골격에 대해서는 물어 보지도 않고, 손쉽게 돈이 적다는 소리부터 질러 놓고 보는 것은 말이 안된다. 서양사람들이 써낸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질차부터 나열해서도 말이 안된다. 우리는 그 이전 단계를 먼저 점검 해야 한다. 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는 구조가 성립되어 있는가? 교과서적인 질차가 먹혀 들어가는 조건이 성립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점검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급선무가 되는 것이다. 나는 다시 묻는다. 그랬을 때 사서진은 좋은 환경속에 놓이는가? 나쁜 환경속에 놓이는가? 사서진은 긍정적인 기류를 타게 되는가? 역류를 타게 되는가?

국립대학인 부산대학교의 케이스를 통해 본다면 거기에는 실로 엄청난 벽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벽만 있다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정확할 것이다. 아마도 이 벽 때문에 이제껏 사서진은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포기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다른 대학들의 사정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럼, 무엇이 벽인가? 대학도서관의 사서진이 장서개발 업무에 있어서 '주체'로 일어 서려고 했을 때 그것을 가로 막는 벽의 요소는 무엇인가? 앞의 장에서 설명한 대로 부산대학교도서관에 대한 나 자신의 외부적 관찰 기간과 내부적 관찰기간에 나에게 잡힌 내용을 정리하여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우선 이른바 '업자'가 원수다. '업자'의 횡포가 문제다. 사서진이 '올바른 자료'를 '빠짐없이' '적정가격을 지불하고' 되도록 '빨리' 입수하려고 했을 때 그것을 가로 막고 서는 것이 국내의 혼탁한 유통구조이며 그것을

장악하고 있는 공급업자들이다. 이들 업자들의 결정적인 잘못은 도서관 자료를 한낱 물건으로 본다는 데 있다. 그리고 이들은 직업윤리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며 비즈니스 기술 수준이 낮다. 눈에 보이는 것은 돈 밖에 없다. 때문에 이들은 사서진과는 이해관계를 아주 달리 한다. 대학도서관의 기존 장서의 혼탁한 모습은 상당부분 이들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업자들은 국내서, 외서 할것없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 마진이 많이 떨어지는 자료, 이미 판매목적으로 확보해 놓은 자료 중심으로 영업을 하려 하기 때문에 도서관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그것이 세계의 어느 곳에 있거나 성실하게 구하여 공급할 수 있는 영업구조 자체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도서추천 시기마다 추천권을 갖는 교수들의 연구실에 들이치는 업자들의 캐탈로그는 바로 이들의 비즈니스 행태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수의계약이나 입찰을 통하여 주문이 다량으로 나가는 경우 대개 납품율이 저조하다. 외국저널의 경우는 결호율이 높다. 빨리 납품하지도 않는다. 외서인 경우가 특히 그러하다.¹²⁾

12) 극히 저조한 국내 대행사의 서양서 납품율을 나타내어 주는 자료로 부산대도서관의 1989년 외국도서 주문현황표(1990. 3. 10 현재)를 아래에 소개한다.

대행사	내 용	주문종수	납품종수 / %	미납사유 / %	계 / %
P 사	교수추천	1163	440 / 37.8	3 / 0.3	443 / 38.1
	참고도서	123	25 / 20.3	7 / 5.7	32 / 26.0
K1사	교수추천	518	277 / 53.5		277 / 53.5
K2사	교수추천	475	294 / 61.9	87 / 18.3	381 / 80.2
S 사	전 체	342	63 / 18.4	38 / 11.1	101 / 29.5

그리고 업자들의 횡포 결과 도서관 자료수집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 책임은 결국 사서진에게 떨어진다. 사서진이 이용자로부터 받는 책임추궁의 한 사례가 다음에 소개하는 서신 속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서신은 1988. 12에 부산대 독어독문학과와 독어교육과가 연대하여 도서관장 앞으로 보낸 것이다.

수신 : 도서관장

한번 짚고 넘어가자. 업자들은 특히 외국자료인 경우 왜 주문을 받을 때는 널름 받아 놓고, 그것도 20% 전후의 높은 커미션을 챙기고서도, 납품을 제대로 하지 않으며 저널의 경우는 턱없이 많은 결회와 올미싱을 내어 장서를 망쳐 놓는가? 왜 빨리 납품을 하지 않고 있다가 연말에 가서 핑크를 내는가? 왜 연말정산을 곤란하게 만드는가? 왜 그렇게 일을 저질러 놓고는

당과에서는 귀 도서관에서 연례적으로 행하는 도서 추천 의뢰와 이에 관련한 당과 교수들의 추천도서의 수서현황에 대해 몇가지 문의하오니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78-88년의 당과 교수들의 도서추천 의뢰 현황과 그 처리 결과에 대해 알고자 합니다.(도서구입권수와 소요된 금액을 연도별로) 특히 여기서 당과의 특성상 당과 교수들의 추천도서의 90% 이상이 외국도서인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현재 당과에서 파악한 바로는 당과 교수들의 추천도서 목록의 거의 다름 차지하는 이 외국도서의 수집현황이 순조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과의 경우 87년도 교수 추천도서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현재까지 단 한 건의 결과도 도서관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했으며 88년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전 당과 교수가 수서과의 수서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직접 확인한 결과 87년도의 경우 당과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으나(당시 직접 담당자가 없다고 하였음) 현재까지 처리결과가 통보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결국 도서수집이 없었다고 말해도 좋다는 것으로 보아 87년도의 경우 어쩌면 단 한 권의 도서구입(외국도서)도 되지 않았음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8년의 경우 추천타감 이후 8개월이 지난 현재 정식으로 결과 통보가 단 한 건도 없었으며 면담시 확인 결과 겨우 총 34권, 금액총계 827,90DM(827.9 X 550원)에 해당하는 도서가 수집되어 있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행정처리의 완만함도 문제지만 1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 구입된 도서의총량이 전체 할당 예산의 12-13%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앞서 지적한 것처럼 당과 배당예산이 당과 전공 도서 구입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면 배당예산의 사용내역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 담당자의 면담시 외국도서의 경우 국내 입하분이 아니면 전혀 도서가 수집되지 않았으며 수집코자 하는 의도조차 없지 않나 여겨졌습니다. 귀 도서관에서 외국 서적상에 직접 주문하지 않았을 뿐더러 현재 추정되는 바로는 국내 수입업자에게 교수 추천도서를 제대로 발주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외국도서가 추천도서의 다름 차지하는 당과의 경우 아예 매년간 도서가 거의 수집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당과 전공도서관으로서 외국도서가 불과 600권도 안되는 한심하다 못해 비참한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 구체적인 보완책이 서야 될 줄로 사료됩니다.

넷째, 현재 귀 도서관에서 도서를 수집하는 절차에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무엇보다 외국 서적상과 직접 거래를 하지 않음으로써 일어나는 경제적 손실을 극소화시키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귀도서관이 외국서적상과 직접 거래를 하여 중간상인에게 묻아가는 유통마진을 극소화시키거나 그것이 귀도서관의 사정상 여의치 않으면 본과에서 직접 주문하고 결재를 귀도서관에서 하는 전향적 개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이러한 사실들을 문해하는 의견을 개진한 것은 보다 나은 학문의 전수와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도서관을 찾고자 하는 바램에서입니다. 구라과 계통의 책 구입이 아무리 힘이 든다 하더라도 전공과목의 성격상 당과로서는 바로 그 외국도서가 주교재이자 연구대상인 것을 생각해 보면 귀도서관의 이때까지의 도서수집 방법에서는 태도가 약간 유감스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라는 공동인식을 가진다면 그 해결책 또한 제시되리라 보고, 이 글 그 점때문에 쓰여졌음을 다시 한번 해방하시기 바라며 끝 분명한 답변이 있기를 기다리겠습니다.

1988. 12.
인문대 독어독문학과
사범대 독어교육학과

전시회를 열어 이미 가지고 있던 재고품을 정리하려고 드는가? 왜 주문 받은 것을 넣지 않고 다른 것을 넣으려고 드는가? 이것은 과연 단순한 불성실과 낮은 비즈니스 기술 수준의 문제인가, 아니면 또다른 요소가 있는가?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산대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어느 캠퍼스 어느 도서관 할 것 없이 말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또 그 내막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안다고도 할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기도 거북한 아주 저질의 농간, 계략, 사기의 연극이 그동안 업자들에 의하여 도서관 장서업무의 무대 위에 올려져 왔던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연극에는 대학 안과 도서관 안에 반드시 동조세력이 있게 마련인 것이다. 이것도 알만한 사람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것이다.

다음으로 업자보다 더 큰 원수는 도서관 안의 행정 사이드이다. 이들은 국립대학인 경우 수서과의 과장직과 서무와 회계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로써 도서관에 관한한 무지하다. 백지로 들어 왔다가 1년 또는 2년 있다가 갈려 나간다. 이들 또한 도서관 자료를 책상이나 걸상과 같은 물건으로 보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수서업무의 수행능력에 비하여 지나친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법이 이들에게 그와 같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관행적으로 해석되어 왔다. 내가 보기에는 여기에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 듯하다. 우선, 수서과장직에 행정사무관을 앉히도록 되어 있는 법규정이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이 땅의 법의 원시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 나라 정부의 무지라고 할 수도 있다. 아마 둘 다인 것 같다. 어찌자고 대학도서관 안에서 가장 전문적이어야 할 수서과장직에 행정직을 앉히도록 하는가? 이 직책은 정리과장이나 열람과장보다 더 전문적 지식과 능력이 요구되는 자리가 아닌가? 이것은 말이 안된다. 당장 고쳐져야 한다. 그 자리에는 당연히 사서직이 앉혀져야 한다. 다음으로 법규

정의 관행적 해석에 문제가 있다. 행정적인 과장의 업무소관에 '수서업무'가 들어 있다고 하여 수서업무의 전과정이 행정직 주사와 그 계통의 서무실 직원에게 반드시 배당될 이유나 필요는 없는 것이다. 행정직들에게는 서무업무와 회계업무만 맡겨지면 되는 것이다. 자료수집업무의 큰 줄기인 선정목록, 구입목록을 만들고 업자를 전문적으로 상대하는 일은 사서진에게 맡겨져 수행되도록 하면 그만인 것이다. 지금까지 그렇게 되지 않고 수서업무의 대부분의 과정은 행정직이 차지하고 사서직은 목록이나 만들게 된 데에는 행정적인 수서과장과 비전문직 도서관장 간의 공생체제가 낳은 무지와 탐욕, 직무유기의 요소가 작용했던 것이라고 본다. 우리는 이 범규정의 잘못과 그것의 해석과 운용의 잘못이 끼친 해독을 생각해야 한다. 못되거나쁜 업자들과의 음성적 결탁의 빌미가 바로 여기에서 주어졌던 것이라고 본다.¹³⁾

마지막으로 업자, 행정 사이드보다도 더 큰 원수는 바로 사서진 자신이다. 원수는 자신 속에 있는 것이다.(Your enemy is within yourself.) 지금까지 대학도서관의 사서진은 정말 용기도 의지도 없었다. 방법도 없었다. 자신의 일에 대한 방관자였다. 그들은 담당자가 아니었다. 멀리 갈 것도 없다. 그 단적인 증거가 지금까지 자기 마당에서 자신이 춤추지 못하고 업자와 행정직이 늘어나게 했다는 데서 드러나지 않는가? 오죽 못났으면 그러고 살았을까? 사실 사서진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 직업적 삶을 그렇게 산 사람들에게 무슨 변명이 있을 수 있는가? 제 마당을 남에게 내어주고 허구한 날 게으름을 피우며 신문의 증권란이나 보고 부동산 책이나 뒤적이는 사람들에게 무슨 변명의 여지가 있는가? 남의 마당이나 기웃거리

13) 국립학교설치령(1992. 3. 6 개정) 제 13조 참조.

면 무슨 소득이 있다는 것인가? 아마도 이제까지 이 나라의 사서라는 사람들은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직업인 가운데서 가장 직업적인 자존심이 없는 부류였는지도 모른다.¹⁴⁾

그럼, 사서진의 결정적 잘못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전술과 기술 없음이다. 그냥 저절로 원한다고 되는 일이 어디에 있는가? 상황을 변전시키려면 전술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벽을 허물고 부셔내리려면, 이해관계에 놀아나는 악의 세력을 쳐부시려면, 그것에 합당한 전술이 개발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악이 무너진 자리에 선을 일으켜 세우려면 기술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도서관 자료를 물건의 개념에서 탈출시키려면 사서진이 전문적 기술로 무장되어야 하지 않겠는가?¹⁵⁾

그럼, 우리 현장의 현단계에 맞는 사서진의 전술과 기술이란 무엇인가?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대학도서관의 장서개발 프로그램을 올바른 위치에 세울 수 있는 전술과 기술이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단답식으로 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답을 구하는 일 자체는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그것은 예시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나라 대학도서관 현장의 문제와 사실의 존재양태는 무한히 다양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여기서 부산대학교도서관의 최근 경험을 말함으로써 이에 대한 대답을 시도해 보려고 한다.

14) 이것은 나의 '내부적 관찰기간'에 얻은 사실이다. 도서관 안에는 도서관업무에 별로 큰 흥미와 관심이 없으며, 따라서 요령과 게으름으로 하루하루를 배우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 이들은 근무시간에 도서관 안에 없는 경우가 많으며 퇴근시간 전에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사라지기 일쑤이다. 이들의 사서직은 남에게 얹혀사는 사서직이다. 주로 하급자에게 얹혀산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다. 이런 부류일수록 도서관만 일단 벗어나면 재주가 비상하다는 것이다. 술 잘먹는 사람, 춤 잘추는 사람, 화투 잘치는 사람, 산에 오르면 노루보다도 더 잘 뛰는 사람은 다 이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다. 사서들의 '아노미현상'이나 소진현상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하여 나의 관찰을 기록하여 둔다.

15) 사서직의 기술혁신 문제에 관하여는 다음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김정근, "사서직과 기술혁신" 도서관소식(부산대도서관), 제 4호(1993. 2), pp.1-3.

부산대학교도서관은 1987-1988 두해 동안에 있었던 학생들에 의한 '도서관개혁운동' 이후 학내에 자리잡기 시작한 도서관문제에 대한 대학구성원들의 인식의 변화, 도서관업무행태에 대한 변화기대 등의 압박 밑에 놓이게 되었다. 도서관에 대한 압력은 총장이하 대학의 보직교수, 일반교수진, 대학원학생, 학부학생 할 것 없이 다양한 그룹으로 부터 행사되었다. 이와 같은 학내의 분위기는 그 동안 이 대학도서관의 장서구성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행사해온 부류에게는 기를 죽이는 작용을 하게 되었으며 도서관 내외의 긍정적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지금까지 이 도서관 속에 누적되어 온 폐단을 척결하고 올바른 일을 추진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이와 같은 계기는 사실 여러 인자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학생들의 데모시기 이후 꾸준히 잡혀왔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⁶⁾

부산대학교도서관의 의식 있는 사서진과 관리진은 최근 몇년 동안에 이와 같은 긍정적 기류를 유리한 배경으로 삼아 사특한 세력을 제압하여 물리치고 마침내 사서 중심의 장서개발 프로그램을 일정정도 창출해 내는 데 성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사서진은 어떻게 업자의 횡포를 물리치고 이들과 결탁하는 행정 사이드 공무원들을 견제함으로써 전문적 원리에 따라 원하는 자료를 적정가격으로 빠짐없이 빨리 구할 수 있게 되었는가? 이것의 설명은 이 도서관의 일꾼들에게는 자신의 얼굴을 한번 더 들여다 보고 결의를 굳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국내의 다른 대학도서관의 의식 있는 사서진에게는 타산지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16) 학생들에 의한 '도서관개혁운동'의 폭과 깊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자료를 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부산대학교 도서관학과 학생회 엮음, 부산대학교도서관개혁운동자료집, 1987. 9 - 1988. 12(1989). 김형균 엮음, 우리들이 쓰는 80년대 학생운동사(부산:여름3미디어, 1993), PP. 243-277 도 그 제 10장에서 "80년대 부산대 도서관개혁운동"을 부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그리고 도서관에 대한 교수진의 압력의 한 사례로서 다음의 자료를 참조하라. "부산대학교 교수평의회가 조사한 대학도서관의 문제들" 부산대학교 교수평의회보, 제 2호(1988. 12. 31).

부산대학교도서관의 사서중심의 장서개발 프로그램은 개발개념 도입- 주제담당사서제 도입- 선택정보제공- 직거래방식 도입 이라고 하는 선정과 구입에 관련되는 일련의 전문적 실천을 통하여 가능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1988년에 시작되어 기복과 진퇴를 거듭한 끝에 6년만인 1993년에 와서 어느정도 정착을 보게 된다. 아직도 역기류의 회귀를 염려하고 복병의 위험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 프로그램이 사서진 자신 속에 심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완전히 내면화 되어 정착이 완료되었는가 하는데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나는 1993년 12월의 시점에 서서 이 프로그램은 '일정정도' 정착 또는 성공하였다라고 표현하여 두고자 한다. 중요한 것은 부산대도서관 사서진은 이제 한번 '주체'가 되어본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공이 사서진의 손에 가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의 향방은 상당부분 그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제 사서중심의 장서개발 프로그램의 구조와 그 핵심을 이루는 실천요소들을 항목을 나누어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개발개념 도입

대학도서관의 장서는 의도성 있게 체계적으로 발란스를 맞추어 구성되어야 한다. 그래야 장서의 질이 보장되며 현재와 미래의 이용자 요구에 대비할 수 있다. 이 작업은 사서진에 의하여, 사서진이 중심이 되어, 대학도서관의 주 이용자 그룹인 교수진, 석박사과정 학생, 대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그래서 전체 장서구성에 대한 궁극적 책임은 사서진에게 있게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서진이 주체가 되어 장서구성의 체계성과 균형성을 담보해 가는 과정을 '장서개발'(collection development)이라고 한다. 1988년 봄학기 동안 '도서관개혁운동'의 데모대가 대자보를 통하여 부산대도서관의 장서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는 동안 일부 사서들 속에서

는 장서에 대한 궁극적 책임이 사서들에게 있다는 자각이 일기 시작했다. 그들은 예산의 대부분을 잡아먹는 도서와 저널을 추천해 온 학과와 교수진은 공격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반면 사서진만이 공격의 대상이 되는 현실 앞에서 회의의 기회를 가졌다. 그들은 결과물인 장서구성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지려면 원인행위가 되는 선정과 구입과정에 자신들의 적극적 역할이 있어야 한다는 깨우침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 자각이 그 뒤 전개되는 모든 긍정적 과정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이다.¹⁷⁾

주제담당사서제 도입

개발개념의 실천주체로서 주제담당사서제가 가동을 보게 되었다. 이것은 현단계에 있어서 자료 업무에 투입될 수 있는 인력의 전문성 정도가 그다지 높지 못한 현실적 조건을 극복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장서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사서들이 일종의 분업체제를 갖추어서 최소한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여기서는 모든 학문분야를 인문·예체능계열, 사회계열, 자연순수계열, 자연응용계열의 4개 계열로 나누어 사서 1인이 한 분야씩 담당하여 계속적으로 선택(선정)자료를 입수하여 학과에 제공하는 일을 하며 부분적으로는 사서가 직접 자료선정 업무를 담당하기도 한다. 이 제도는 1988년 이래 단행본 수서실에 도입되어 있으며 연속간행물 실에는 1992년 이래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현재까지 선택정보자료 제공 업무를 중심으로 추천 받은 외국자료의 서지검색 작업, 기본장서개발 업무, 학술잡지 타이틀 타당성 조사 등의 전문 업무분야에 중점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제도는 부산대도서관이 앞으로 사서중심의 장서개발 업무구조를 확고

17) 부산대 도서관의 사서진이 장서개발 과정에 있어서 자신들의 체계모니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이상재 등, "단행본 수집업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도서관소식(부산대도서관), 제 3호(1992. 8), pp. 4-24; 유익봉 등, "연속간행물 수집업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도서관소식, 제 3호(1992. 8), pp.25-45.

하게 다져나가는데 핵심장치로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장차 인력의 구성이 달라지고 자질이 향상되었을 때 주제전문사서제를 표방하고 나설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믿어진다.¹⁸⁾

선택정보제공

선택정보제공 업무란 외국도서의 선정이 대부분 교수추천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서관이 보다 양질의 도서와 최신도서를 추천받기 위하여 교수들에게 선택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얼마전까지 부산대학교에서의 도서추천은 추천시기마다 각교수 연구실로 투입되는 서점목록이나 전문도서, 학술잡지속의 인용문헌에서 선정하여 추천되는 경향이 있었기에 장서구성상 불균형및 최신성이 뒤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부산대학교도서관은 이와 같은 종래의 도서추천방식에서 조금이나마 탈피하고자 세계의 주요서평지, 서지도구동을 이용한 선택자료를 교수들에게 제공하여 사서가 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선택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정보의 누락을 최대한 보완하며, 장서구성상의 균형과 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왔다.

1989년부터 실시된 이 제도는 주제담당사서가 외국출판사의 출판목록과 Books In Print, Choice, Books For College Libraries, 일본출판년감 등 서지도구에서 해당부분을 뽑아서 제공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이는 사서직이 도서관내에 주제전문사서가 없는 상황에서 장서개발에 있어서 최소한의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공자료의 많은 부분이 외국출판사의 최신 목록에 집중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므로, 선정범위가 제공되는 출판목록의 범위로만 제한 될 우려가 있어 예를 들어 92년도에는 외국의 305개 출판사 특히 독일, 프랑스,

18) 주제담당사서제 도입에 대해서는 내가 대학교육협의회가 주최하는 대학발전을 위한 부산·경남지역 세미나(해운대 과라다이스비치호텔, 1989. 6. 28)에 '대학도서관 발전을 위한 방안'분과의 주제발표자로 참여한 자리에서도 제안한 사실이 있다. 大學發展을 위한 부산·경남地域 세미나 發表 論文集(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89), p.69.

일본 지역을 집중적으로 추가하여 출판목록 요청을 다양화 하였고, 분기별 도서추천제 도입에 따른 년 4회 선택정보자료제공으로 최신성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제공되는 선택정보자료가 대개 국내에는 수입되어 있지 않은 최신의 자료를 소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거래를 통한 신속한 구입을 했을 때 자료의 효용도는 더욱 높아진다고 본다. 이 제도가 지난 5년간 실시되어오며 따라 상당히 많은 교수들이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선택정보자료를 이용하여 도서추천을 하게 되었다. 앞으로 더욱 다양한 양질의 선택정보자료를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선택과 추천과정에 있어서 사서진의 참여의 폭과 깊이를 더해 가야할 필요성이 있다.¹⁹⁾

직거래방식 도입

사서진이 국내업자들의 방해와 도서관내 행정사이드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며 전문적 장서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해 감에 있어서 하나의 정점을 이루는 장치로서 이른바 직거래가 도입되었다. 국내 업자들을 통한 간접거래가 배제된다는 뜻에서 통상 직거래라고 부른다. 아래에서는 부산대도서관에서 이 방식의 개척에 중요한 몫을 담당했던 손정, 신주영 두 사서의 글과 말을 빌어서 설명을 시도하여 본다.²⁰⁾

A. 단행본 외국자료 직거래구입 업무

선택정보자료의 제공등으로 외국자료 선정부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

19) 도서관소식, 제 3호(1992. 8), pp. 23-24.

20) 이 부분은 第 19次 國公立大學(校) 圖書館·情報學 學術 세미나 發表資料, 1992. 8. 21-8. 27(부산대학교 도서관, 1992)에 실린 손정의 "단행본 수집업무 전문화의 문제"(pp.19-35)와 신주영의 "연속간행물 수집업무 전문화와 문제"(pp. 36-56)에 주로 의존하여 쓰여졌다. 이 자료에 빠져있는 최근에 달라진 상황도 이 두 현장사서가 제공해 준 정보를 사용하여 보충하였다. 그리고 직거래방식을 개척함에 있어서 그 성과물 좌우하는 하나의 관건이 통신문제이다. 이것은 사서진의 외국어(주로 영어) 독해능력과 통신문 작성능력과 관련이 된다. 부산대 도서관의 경우 이 문제는 직원의 훈련과 통신문의 자체개발을 통하여 해결을 보게 된다. 직거래를 위한 외국어 통신문제에 대하여는 다음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손정, 김미란, "직거래통신 이렇게 하고 있다 - 단행본 구입업무를 중심으로" 도서관소식(부산대도서관), 제 5호(1993.6) pp. 6-53. ; 신주영, 장향자, "직거래통신 이렇게 하고 있다 - 학술지 구입업무물 중심으로" 도서관소식(부산대도서관), 제 5호(1993. 6) pp.54-92.

나 구입부분에 있어 국내서점을 통한 외국 발주의 결과는 업무상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켰으며 구입률이 낮아 추천자들의 불만을 초래하였다. 이에 부산대학교 도서관은 외국과의 직거래를 통하여 자료를 신속,정확하게 구입하고 예산을 절약하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사서가 더 깊이 장서개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산대학교 도서관의 외국자료 수집방법의 변천과정은 아래표와 같다.

외국자료 수집방법의 변천과정

연 도	추 권 방 법	구 입 방 법
1987 까지	추천카드에 출판사와 국내 주문처를 따로 기입	국내주문처별로 구입주문 : 국내서 점에서 구입 못하면 미구입처리
1988	"	국내서점을 통하여 부분적 외국발주
1989 1990	추천카드에 출판사만 기입	국내현품조사 후 나머지는 국내서점을 통하여 외국발주
1991	"	국내현품조사 후 나머지는 직거래
1992 이후	"	전략 직거래 분기별 자료추천

위의 표를 살펴보면, 1987년도까지는 국내에 있는 현품만을 구입함으로써 자료 수집의 한계성을 나타내었으며, 추천자들의 불만을 샀다. 1988년 이후, 1989~90년도에는 국내서점을 통한 현품구입과 외국발주를 시도했지만 구입시기가 너무 늦고 구입률도 매우 낮아 구입업무의 신뢰를 얻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와같이 90년도까지 국내업자를 통한 외국도서 구입방법은 도서관 수서업무의 본질을 왜곡하는 여러가지 병폐를 드러 내었다. 그 문제점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추천시기를 즈음하여 국내서점목록이 다량으로 교수들에게 배포됨으로써 선택자가 다양한 정보 즉, 선택도구가 없는 상황에서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구입할 수 있는 국내서점보유자료에 한정하여 단일하게 추천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따라서 추천자료의 적절성과 최신성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평가된다.

둘째, 납품업자들의 무성의로 인하여 주문자료의 구입률이 지극히 저조하였고 자료가 신속하게 입수되지 못하였다. 특히 미구입자료에 대한 사유가 분명치 않아 추천자에게 도서관의 신뢰가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세째, 원가격의 약 20%정도(30%까지 줄 수 있음)의 커미션을 추가지출함으로써 예산부족의 문제를 안고 있는 도서관의 상황에서는 매우 비효율적이었다.

네째, 송장원본(Original Invoice) 미제출 등으로, 정확한 가격근거가 불충분하여 국내업자들에 대한 도서관측의 불신감이 고조되었다.

국내서점을 통한 구입업무의 문제점을 요약하여 정리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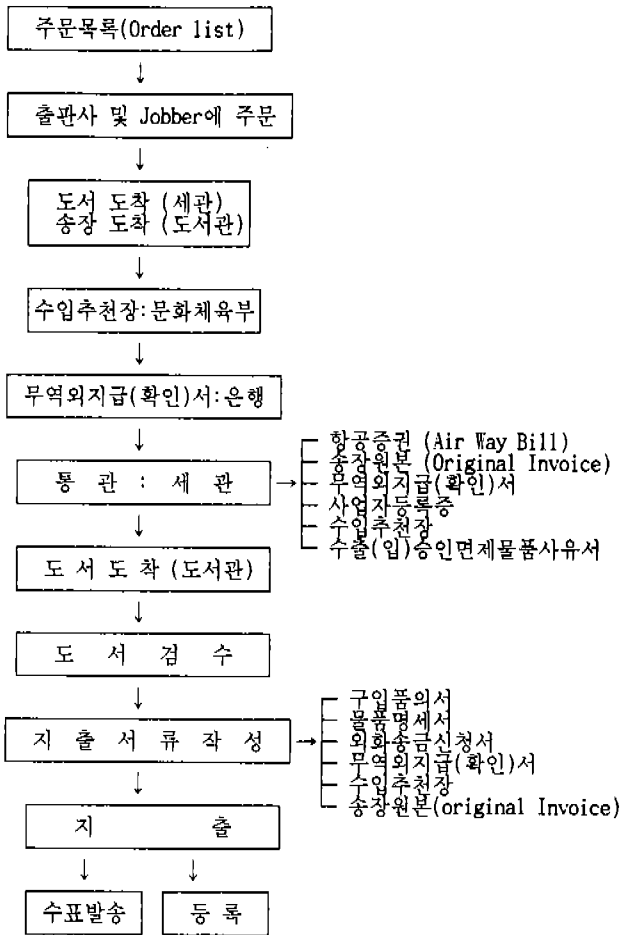
국내서점에서 현품구입	국내서점을 통한 외국 발주
국내서점목록의 다량 배포로 자료의 적절성과 최신성의 문제	업무협조가안됨 ; 송장(Invoice) 미제출, 주문장 미제출 등
고객으로부터 도서관과 서점과의 관계 의심 ; 추천시기에 서점의 도서전시	구입률이 낮다
원가격의 20% 추가 지출	원가격의 20% 추가 지출
가격조사 근거가 불충분함	가격조사 근거가 불충분함
외국발주시기가 늦어짐	구입기간이 길다

따라서 이와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1991~93년에는 외국자료직거래를 실시하게 되었다.

다음은 외국과 직거래로 자료를 구입하는 과정을 도표화 해본 것이다.

대학도서관에 있어서 사서중심의 장서개발은 가능한가? / 31

발송방법이 \$2,000 이상의 화물인 경우에는 이 과정을 거치지만 소포일 경우는 통관과정이 생략되고, 가격이 \$2,000미만일 경우에는 수입추천을 의뢰하는 과정이 생략된다.



구입방법에 있어서 직거래로의 전환은 좋은 자료의 선정 못지 않게 선택된 자료를 신속.정확하게 적절한 가격으로 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제고와, 자료구입 업무를 완벽하게 해 나가는 과정에서 사서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직거래 효율을 더 높이기 위해 연 1회 실시하던 도서 추천을 연 4회에 걸쳐 분기별로 실시함으로써 신속한 주문과 구입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89년도부터 실시하여 오던 선택정보자료제공업무를 개선하여 92년도 부터는 구미지역 227개처, 일본 78개처 등 인지도가 높은 출판사에 최신 출판목록을 의뢰하여 추천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바람직한 장서구성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 따라 그 동안 실시된 직거래 결과 예산절감, 구입기간의 단축, 구입률의 향상 그리고 다양한 출판정보와 자료의 유통관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게 되었다. 특히 정가의 약 20% 까지 추가 지불하던 것을 오히려 인보이스가격에서 약 5~10%할인을 받음으로써 약 25~30%의 자료비를 절감할 수 있었다. 이것은 기타 통신비용을 제외하더라도 도서관으로서는 큰 이익을 얻는 길이었다. 1992년의 경우, 서양서 단행본 부분에서만 약 3천만원의 순수 절감효과를 내었다. 그리고 구입률의 향상과 구입기간의 단축은 직거래로 인한 성과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서, 국내업자를 통할 경우 구입기간이 주문일로부터 약 10개월이상 걸리고, 구입률이 평균 50%를 밑돌던 것이 92년도 전량 직거래를 실시한 이후 주문일로부터 약 3개월만에 평균 80%를 넘는 구입률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92년 4월 18일부터 93년 3월 2일까지 5차례에 걸쳐 Academic Book Center Inc. 에 주문한 자료의 구입결과를 살펴보자.

(93년 10월 9일 현재)

	종 수	백분율
총 주문 종수	3,669	100%
구입 완료 종수 (미구입 사유 통보 받은 종수 포함)	3,551	96.8%
현재까지 미구입 종수(구입중포함)	118	3.2%

반면,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외에 통신상의 언어장애, 행정업무의 폭주, 우편사고의 우려, 통신비용의 증가등 직거래의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는 업무의 전산화와 직원의 재교육등 다양한 방안으로 해결책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5년간 구입방법의 변천과정 속에서 외국출판사 Jobber 국내서점을 통한 외국 발주 결과를 비교분석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외국출판사	Jobber	국내서점
가 격	5 ~ 20 % 할인	5 ~ 10 % 할인	20% 추가지불
지불형태	선 불	후 불 가능	후 불
장 점	예산절감 구입의 신속성 미구입사유정확	예산절감 구입의신속성 미구입사유정확 거래대상이 많지 않음 종합출판정보서비스	업무간편 후불
단 점	선불요구 의사소통부자유 통신요금증가 행정업무증가 : 문체부, 은행, 세관 통관 등 업무 폭주 : 국내서점이나 Jobber를 통한 경 우보다 대폭 증가	화물일 경우 통관업무 의사소통부자유 통신요금증가 행정업무증가 거래처와의 업무 증가 : 국내서점을 통한 경우 보다는 증가	예산낭비 구입이신속하지못함 신뢰성이 없음 : 인보이스미제출, 미구입사유불분명 출판정보가 없다

B. 연속간행물 외국자료 직거래구입 업무

부산대 도서관의 전체 자료구입비 중 절반이 넘는 부분(단행본:학술잡지 비율이 1991년도 40:60, 1992년도 35:65, 1993년에는 이보다 더 높은 비율이 연속간행물 구독에 배당되었다)이 연속간행물 구입에 투입되어 오고 있다. 다시 연속간행물 구입비의 대부분은 서양서 저널 자료 구입에 투입된다. 그

러나 그동안 구입방법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왔다. 가격문제, 결호문제, 신속성의 문제 등이었다. 이에 부산대도서관은 직거래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해결점을 찾게 된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서양서저널자료 구입업무의 문제점

(가) 1991년까지 서양학술지 관련 업무는 이분화되어 처리되었다. 즉, 자료의 이용, 열람과 보존업무는 열람과 연속간행물실에서, 자료의 선정과 구입업무는 수서과 서무계에서 담당하는 이중 구조였으므로 업무간 상호연계가 원활치 못하였다. 그리고 담당자의 잦은 이동으로 인해 담당사서는 전문적인 업무경험이 축적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더욱이 우리의 도서관 환경을 고려해 볼때, 구입업무가 서무계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업무의 주도권을 사서가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알수 있다.

(나) 구입되는 서양학술지의 선정은 학과 교수진의 추천에 전적으로 의존했다. 즉, 구입되는 서양학술지는 전부 학과 교수진의 요구에 의해 선정·교체되는데, 이럴 경우 전체 장서의 균형을 고려한 자료선정이 되기보다는 개인적인 필요성에 근거한 결정이 내려지므로 자료구성이 산만해 질 우려가 컸다.

(다) 자료구입관련 업무를 국내 대행사에서 대행하는 간접거래방식이였다. 자료구독의 간접거래방식은 대행사의 불성실한 처리로 인해 연착과 결호가 많이 발생하고 구독료가 비싸게 책정된다. 또한 구독하는 잡지에 대한 정보가 직접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업무처리가 신속정확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2) 서양서저널자료 구입업무 개선

앞서 지적한 문제점을 요약해보면, 사서는 연속간행물업무에 있어서 주

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였으며 자료입수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92년을 기점으로 서양학술지 구입업무는 조직적인 변화를 시도하게 되었는데 서양자료구입업무를 담당사서에게로 일원화시키고, 자료개발개념을 도입하여 자료는 조직적으로 정선하고 선정과정에 사서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개념을 도입하고, 자료선정등의 지적인 판단을 요하는 상황에 자료개발위원회(공동의 결정)의 결정을 통하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

서양학술지 구입업무에서 이러한 요인들을 가장 집약적으로 설명해주는 출판사직거래 및 외국대행사를 통한 구독방법의 도입과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외국학술지수집의 부실함에 대한 논의가 오래전부터 도서관내·외적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오다가 1991년 말에 국내대행업자를 통한 입수방법이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는 주요인이라는 판단에 결국 도달하게 된다. 즉, 국내업자를 통한 간접거래방식에서는 자료처리에 궁극적인 책임이 있는 사서가 상대적으로 주도성을 띠지 못하게 되며, 대행업자의 불성실한 처리로 인해 결호율이 높다는 등의 잡지구성상의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서관실무자 차원에서 직거래 방식에 대한 준비가 지속적으로 있어온 것은 아니고, 1991년 말 총장과 관장에 의한 위로부터의 격려와 지원에 힘입어 외국 출판사와의 직접거래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되었다.

(나) 외국출판사와의 직접거래를 위한 준비작업이 그 이전에 없었기에 1992년도분 구독자료에 대한 직거래 가능성 여부와 대상자료 범위결정이 한동안 논의되었다. 결국 1992년도분 구독자료 전량을 모두 직거래하기에는 무리와 위험이 따르므로,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고, 실무사서들이 가까이서 자료를 다룰 수 있으며, 구독관련 업무가 다양하여 기술훈련에 도움이 되리라고 예상되는 본관비치 인문·사회계열자료에 한해서 출판사직거래결정

이 내려졌다. 당시 구입방법에 따른 구입분 서양학술지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92. 1월 현재

구 분	자 료 구 분	종 수	비 고
직거래	인문, 사회계열 본관비치 자료	413	
간접거래	자연계열 과학분관비치 자료	554	입찰을 통해 업체 선정
	의학계열 의과대분관비치 자료	301	
	서지류 서지조사실비치 자료	33	
계		1,301	

(다) 직거래 대상자료 주문 및 결호독촉

1) 1991.12.10자로 직거래 대상자료 413종에 대한 255개 출판사에 1차 적으로 송장(invoice)요청을 하게 되는데 FAX로 47개, 우편으로 208개 출판사에 편지를 발송하였다.

2) 1992.3.2자로 송장 미도착 96개 출판사에 대해 독촉장을 보냈다.

3) 1992.4.28자로 송장 미도착 37개 출판사에 대해 재독촉장을 보냈다.

4) 1992.7.21자로 송장 미도착 10개 출판사에 대해 재독촉장을 보냈다.

5) 이후로 연락 및 결호에 대한 독촉장을 수시로 발송하여, 93년 12월말 현재 '92년도 출판사직거래 구독분 총구독 호수 2313호중 10호가 결호되어 99.57%가 입수되었다.

(라) 지출관련 사항은 단행본 수서업무 진행과정에서 밝힌 것과 동일하나, 간행물 배달은 출판사에서 날권으로 발송하는 방법을 택하기에 세관통관 업무가 생략된다.

1) 지출비용이 \$2,000이하('93년 가을에 \$1,000이상에서 \$2,000이상으로 관련규정 변경)일 경우에는 바로 외환은행을 통해 환금 후 송금수표를 출판사로 우송하고 출판사에서 송금수표를 받으면 구독계약이 체결된다.

대학도서관에 있어서 사서중심의 장서개발은 가능한가? / 37

2) 1건(1개 출판사) 지출비용이 \$2,000을 넘으면 외환관리규정에 의해 문화체육부 추천과정을 거쳐야 국외 지출이 가능하며 추천승인을 얻고 나면 \$2,000이하의 처리과정과 동일하다.

3) 지출관련 구비서류

구입품의서, 물품명세서, 외환송금신청서, 무역외지급(확인)서, 송장, 수입추천장(\$2,000이상일 경우)

(마) 서양학술지 출판사직거래 방식 도입에 따른 평가작업이 '92년말에 진행되어 결호방지, 예산절감, 사서의 역할 증대 등의 효과가 있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결국 '93년 이후 직거래방식의 확대를 염두에 둔 준비작업이 실무자선(사서)에서 계속 진행되었고, 사서들의 구독관련 업무기술이 향상되었으며, 출판사 직거래에 따른 장점이 많다고 판단되어 '93년도 구독분에 대해서는 국내대행사를 통한 구독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즉 고가의 서양학술지(281종)는 출판사를 통해 직거래를 하고, 그외의 서양학술지(1013종)는 국내대행사에 비해 서비스능력이 뛰어나고 예산도 절감이 되는 외국대행사(EBSCO, FAXON)를 통한 구독으로 구입방법을 개선시켰다.

(바) '93년도분에 대한 구독방법 개선으로 구미학술지 구입예산이 국내대행사에 비해 약 67,000,000원 절감되었다. 결호율도 매우 낮고 비교적 정규적으로 입수되고 있으며 출판정보도 정확하게 입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선편으로 배달되기에 발행후 2-3개월 후에야 도서관에 도착하는 신속성의 문제가 그동안 남아 있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구미학술지 구독방법을 다시 변경시켜 외국대행사에서 제공하는 “정기간행물고속운송서비스”를 채택하여 '94년도 구독분부터 적용시키기로 결정하여 '93년 12월 말 현재 추진중에 있다. 이 구독방법은 구미학술지가 국제가격으로 계약되어, 날개(호수별)로 포장되어, 선편으로 우송되던 지금까지의 방법과는 달리

출판사 현지가격으로 저렴하게 계약되어, 박스로 포장되어, 항공으로 운송하여 발행 후 2-3주만에 도서관에 직접 배달(Door to Door Service)해주는 방법이다. 새로 개발된 고속운송방식의 도입으로, 자료의 최신성을 바라는 본교의 연구진들에게서 상당한 호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금까지 나는 나 자신이 참여하며 관찰한 대로 부산대학교 도서관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대체로 1988년 초부터 1993년 말까지 진행된 '변전의 구조'(the structure of change)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나는 이전 시기 행정 사이드와 업자간의 공생체제로 기울어져 있던 장서업무의 축이 사서진 쪽으로 이동해 간 구조를 사실적으로 설명해내어 보려고 노력해 보았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변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완결된 그 무엇이 아니다. 이것은 지금도 진행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어떤 모습을 띠고 진행되어 갈 과정인 것이다.

4.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은 무엇인가?

- 결론에 대신하여

사람들이 성을 쌓았다고 하자. 이제 막 쌓는 일을 끝내었다고 하자. 이들이 그 다음에 할 일은 무엇이겠는가? 나는 그것은 성을 지키는 일이며 성안의 안정을 다지는 일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제 참여 관찰이 끝난 시점에서 이 글을 쓰고 있다. 나는 1993년 11월 30일부로 만 2년 10일간의 임기를 마치고 부산대학교 도서관장직에서 물러났다. 총장은 나에게 2년을 연임할 것을 제의하였다. 나는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제의 자체는 사양하였다. 솔직히 말해 나에게는 힘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았다. 나는 지친 나머지 하루도 더 갈 수가 없었다. 그리고 나는 글을 쓰고 싶었다. 체험의 새로움이 가시기 전에 내 나름의 경험에 대한

보고서를 생산해야겠다는 생각이 충동질해왔다. 그리고 나는 무엇보다 사서진의 자생력의 정도를 밖에서 한번 지켜보고 싶었다. 이들에게는 이제 어떤 조건에서라도 '주체성'을 견지해 나아갈 자생의 능력이 있는가? 아니면 조건이 바뀌면 도장 속의 쥐새끼들 처럼 이해관계를 쫓아 이리뛰고 저리뛰는 존재들인가를 한번 보고 싶었다. 조건이 바뀌면 다시 무기력하고 비겁해지는가도 알고 싶었다. 사실 나에게서는 이 마지막 부분인 사서진의 자생성과 주체성을 테스트하고자 했던 것이 가장 큰 관심사였다고 할 수 있다. 나는 그 부분이 너무 알고 싶었다. 왜냐하면, 나는 어차피 현장은 그들의 몫이라고 생각했기에 가능하다면 빨리 그들 스스로 자생력을 가지고 움직여 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다. 다른 한편 현장의 자생성과 주체성의 여부는 부산대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공동작업실의 향후의 프로그램 방향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부분이었다. 솔직히 우리는 현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제국주의자'도 될 수 있고 호혜평등의 '선린'도 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 나라 도서관현장의 현단계를 정확히 알고 그것에 따라 학문의 길을 개척해 가야 하는 입장에서 서 있지 않은가?

사실 나는 예정된 부산대도서관장 임기만료일인 1993년 11월 20일이 되기 6개월 전에 임기를 단축하여 끝내고자 총장에게 제의한 바 있었다. 그것은 바로 위의 이유들, 그 중에서도 사서진의 자생성 부분에 대한 나의 탐구심 때문이었다. 이 조기퇴진의 시도는 총장의 완강한 거부로 실패하였고 결국 통상 임기 2년보다 오히려 10일쯤 더 보탠 뒤 물러나는 꼴이 되었다. 그때 내가 의도했던 바와, 나와 부산대 도서관을 둘러싼 주변상황을 설명해보이기 위해 당시 내가 총장 앞으로 쓴 편지의 내용을 옮겨 본다.

존경하는 C 총장님께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대학발전을 위하여 밤낮으로 뛰고 계시는 총장님께 경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관례대로라면 2년으로 되어 있는 도서관장의 임기를 현관장의 경우 그 사정을 감안하셔서 1년 반으로 조정하여 주셨으면 하는 저의 바람을 건의드리기 위하여 이 글을 적고 있습니다. 매우 죄송합니다만, 관례대로라면 이 해 11월 20일까지로 되어 있는 저의 임기를 반년 앞당겨 5월 20일로 끝내 주실 것을 공식적으로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그 이유는 아래에서 설명드리는 대로입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것이니 어떤 숨겨진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의 임기의 1년 반이 되는 5월 하순이면 91년 11월 21일 제가 도서관장직에 오르면서 구상했던 도서관개혁 프로그램이 저의 마무리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시점이면 제가 계획했던 개혁성 프로그램의 추진 전모가 드러나게 되며 그것들이 이미 도서관의 구성원들에 의해 거의 완전하게 소화되어 가동 중에 있게 됩니다. 단행본 수집 프로그램, 연속간행물 수집 프로그램, 서지조사 프로그램, 이진준비 프로그램, 전산화 프로그램, 도서관 운영세칙의 마련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조기달성'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 개혁성 프로그램은 여러 해당 분야의 담당자들에 의하여 완벽하게 문서화되어 '도서관소식' 3호(1992.8)와 4호(1993.2)의 형태로 간행되어 업무추진의 길잡이가 되어 있으며 또한 외부에 공개된 상태에 있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개혁성 프로그램의 추진 내용은 지금 준비중에 있는 '도서관소식' 5호(1993.5월 발간 예정)에 모두 실려 업무에 활용되며 또한 외부에도 소개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개혁성 프로그램들의 완성과 맞물려 저의 정신과 몸의 에너지 또한 소진된 단계에 와 있음을 느낍니다. 이것은 조금도 과장이 아니며 사실 그대로입니다. 이제 더 이상 움직이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조금 더 무리하게 되면 큰 병을 얻게 될 것도 같습니다.

따라서, 현관장은 이 단계에서 물러나고 새 관장이 들어와 전임 관장의 개혁성 프로그램을 정착, 발전시키는 한편 새로운 개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정력적으로 펴 나가는 것이 대학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수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몸으로 느낍니다만 현관장이 더 이상 머물러 앉아 이미 고갈된 에너지로 다음 단계의 도전에 대처하는 데는 무리가 있으며 또한 부산대가 보유한 인력자원을 감안할 때 그러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학도서관을 사랑하시는 총장님의 통찰이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후임자 물색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신 후 1993년 5월 20일자로 해임조치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동안 부산대학교의 발전에 작은 힘이나마 보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간의 경험은 '대

학도서관경영론'을 강의하고 있는 저에게는 좋은 공부와 깨우침을 얻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감사하는 바입니다.

그동안의 격려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하일민 전임교수회장, 김준오 교무처장, 정동현 기획연구실장, 류탁일 사대학장께 안부 전하여 주십시오. 이 분들에게도 축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강경태 부관장 이하 도서관의 70명 구성원들의 수고 또한 많았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내 안녕히 계십시오.

1993년 4월 10일

김정근 올림

나는 이제 내 자신이 같이 뒹굴며 그것의 한 부분이 되어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운 현장에서의 과정을 벗어나 있다. 나와 부산대도서관 간의 물리적 거리는 다시 예의 30m 사이로 벌어졌다. 나는 이 입장에서 부산대 도서관의 장서개발 현장의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을 어떻게 보는가?

나는 이렇게 본다. 업자측의 권토중래 노력은 당분간 지속되리라고 본다. 모함도 계속될 것이다. 직거래하는 사서들을 사대주의자라고 몰아붙이기도 할 것이며 국내의 업자를 보호해 주어야하지 않겠느냐고 통사정도 해올 것이다. 나는 다 허튼소리라고 본다. 사서진은 단호하게 큰소리 쳐야한다. 국내의 업자들은 경쟁력을 길러 오라고, 비즈니스의 기술과 성실성과 염치를 길러오라고 호통을 쳐야한다.²¹⁾

행정사이드의 권토중래 노력도 지속될 것이다. 그들은 전가의 보도처럼 예산회계법을 들먹일 것이다. 남이 하는대로 하자고도 할 것이다. 마음 속 깊은 곳에서는 '떡고물' 생각도 많을 것이다. 사서진은 이들도 단호히 제자리에 세워야 한다. 그들을 다시 장서개발의 '주체'의 위치에 세우면 안된다.

21) 나는 직거래를 하는 도서관장으로서 P업자의 항의방문을 받은 적이 있다. 항의의 요지는 두가지였다. 첫째, 위법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둘째, 국내업자를 보호해 달라는 것이었다. 나는 다음과 같은 대답으로 물리쳤다. 위법한 사실에 대하여는 법에 호소하라. 보호를 받으려면 경쟁력을 길러오라.

다. 그들은 이름 그대로 일반서무를 담당하며 회계업무를 보는 행정지원인력으로 남아야 한다. 사서진은 행정사이드를 향하여 이 말을 꼭 해줘야 한다. '교육부 감사반이 '창의적'이라고 칭찬한 직거래를 왜 자네들이 문체 삼는가?'²²⁾

사서진 자신 속에 있는 원수가 들고 일어날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이상 싸우기 싫어질지도 모른다. 예의 게으름 농땡이 기질이 되살아나 일을 쉽게 처리하고 싶어질지도 모른다. 개중에는 기민하게도 업자와 내통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다. 행정사이드 편을 들어 다소간의 이익을 챙겨 보려는 속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이 때 의식있는 사서진이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이들이 중심이 되어 전체 사서진의 에너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통합시켜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직업을 직업답게 살려 나가야 할 것 아닌가? 사서진이 장서개발 과정에 '주체'로 서지 못할 때 과연 직업이 살려진다고 볼 수 있겠는가?²³⁾

마지막으로 자문해 본다. 우리 대학도서관 현장의 현단계에서 사서 중심의, 즉 사서가 '주체'가 되는 장서개발 프로그램은 가능한가?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사서진에게 용기가 있을 때, 그들에게 걸림돌을 제거하는 전술이 있을 때, 그리고 업자들이 손을 들고 행정사이드가 손을 드는 뛰어난 업무 기술이 있을 때, 그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1988년부터 1993년까지 6년동안

22) 부산대 도서관은 1992. 10. 20 - 10. 30에 교육부 종합감사(도서관담당:조창희 감사관)를 받은 사실이 있다. 감사 이틀체인 10. 21에 국내 도서 선정 및 품의·구입 절차와 서양서 및 외국 학술잡지 선정 및 품의·구입 절차에 대한 감사가 있었다. 결과는 '지적사항 없음'이었다. 감사관은 오히려 '부산대 도서관은 창의적으로 하십니다.'라고 코멘트하였다.

23) 나는 1993. 12. 1 이후 약 1달 동안에 부산대 도서관 사서진용에 '자신 속의 원수' 현상이 나타난 것을 관찰하였다. 일부 간부사서가 행정사이드와 결탁하고 업자와도 내통하며 이권을 챙기려고 시도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 관찰되었다. 귀추가 주목되며 공론화를 통한 적결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한가지 의문점을 제기해 두고자 한다. 그것은 왜 대학도서관의 '주체'를 일으켜 세우는 일에 있어서 '자신 속의 원수' 현상이 주로 중간관리자, 간부사서, 경력사서 가운데 생겨나는가 하는 것이다. 그것은 이들이 단순히 사람이 나빠서일까? 이들의 실성때문일까? 나이든 사람들의 타성이나 기득권 때문일까? 아니라면, 이들은 '주체'로 일어서기에는 능력과 훈련의 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것일까? 그래서 이들은 차라리 조직의 발전을 저해하면서까지 '아류'로 남겠다고 버티는 것일까?

대학도서관에 있어서 사서중심의 장서개발은 가능한가? / 43

의 부산대 도서관이 통과한 역사적 경험에 근거를 두고 나는 조심스럽게 이와 같이 말해 두고자 하는 것이다.

Is the Librarian-Centered Collection Development Possible in College and University Libraries?

Jung-gun Kim*

For decades, general services and accounting officers have been dominant forces in collection development activities in college and university libraries in Korea. The role of certified librarians has been rather peripheral. This has been allowed by the fact that library acquisitions departments had to be headed by non-librarian general administrative officers by the government regulation. The philosophy behind this regulation was that acquiring library materials was not any different from simple purchasing act of other useful goods in the marketplace.

In affiliation with the element of general administrative officers, domestic book-sellers also had a great influence in collection building activities in college and university libraries in Korea. This has been made possible by the fact that no other people could supply library materials, especially foreign library materials.

It has been pointed out for years that the mechanism in which general administrative officers and domestic book-sellers had a greater say in library acquisitions activities was especially inefficient in acquiring wanted materials in wanted speed and in wanted price. In this

* Professor, Department of Library, Archives and Information Studies, Pusan National University

mechanism, books and periodicals were mere goods. They were not perceived as intellectual property holding information and knowledge in them.

Since the student movement to revolutionize the library system of the Pusan National University, September 1987 to December 1988, the creative and progressive elements in this university library have been making great efforts to change the acquisitions system in this library into a more efficient one by putting certified librarians at the center of the whole acquisitions process. These efforts have been successful to a certain degree.

In this discursive study of the case of the Pusan National University Library, I have tried to achieve a social description of the library process in which progressively motivated librarians succeeded in alienating administrative officers and book-sellers and in grasping in their hands the hegemony in the collection building aspect of library activities.

It has been discovered that this was possible only when the librarians were mature enough to have their kind of professionalism, i.e., professional ethics and craftsmanship.